

구두개입·환헤지 등 가용 수단 총동원... 금리인상 가능성도

고환율 뉴노멀 시대

환율 대응능력 시험대 <골>

외환보유액 활용 등 총력전 양상
결정적 한방 부족... 환율추세 미지수
원화약세 완화 카드로 금리인상 거론

원·달러 환율이 한 달 넘게 15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구두개입과 국민연금 환헤지, 외환보유액 등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이지만 대부분 이미 가동 중이거나 반복 사용에 제약이 있어 환율 추세를 돌릴 결정적 카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40분께 1544원 안팎에서 움직였다.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 은행이 경계하는 것은 1500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경제의 기초여건에서 벗어난 급격한 변동과 일방향 쏠림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1530원대 중반의 원·달러 환율이 국내 경제의 기초여건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1500원대 환율은 투기적 움직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당국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간 거래 증가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500.1원으로 집계됐다. 분기 평균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1596.8원) 이후 28년3개월 만이다. 28일 서울시내 환전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환전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경고 이후 쏠림이 일부 진정됐는데도 달러와 외국인 자금 흐름, 기업·개인의 달러 수요가 맞물려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에서는 쏠림이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 것 같다"며 "현재 환율은 강달러에 수급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 국민연금·외환보유액도 '양날의 검'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별도의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시장에 경고를 보내 투기적 달러 매수와 환율 상승 기대를 누를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해외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환전 지연 처럼 실제 달러 수요가 이어지면 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카드는 국민연금 환헤지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의 기본 환헤지 비율을 15%로 높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환헤지가 집행되면 달러 매도 효과가 발생해 원화 약세 압력을 낮출 수 있다.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왑도 가동 중이다. 양측은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외환당국에서 조달하도록 해 시장의 달러 매수 압력을 줄이는 장치다.

국민연금카드는 실효성이 있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기관

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외환시장 안정 효과만을 앞세워 환헤지를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기금 수익성과 독립적인 운용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외환당국이 보유한 가장 직접적인 실탄은 외환보유액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69억9000만달러다. 당국이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면 공급을 늘려 환율 급등 속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외환보유액도 특정 환율을 무기한 지키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 시장 개입이 반복되면서 보유액 감소폭이 커지면 오히려 불안을 자극할 수 있고, 시장이 특정 가격대를 방어선으로 인식하면 투기 세력이 당국의 개입 여력을 시험할 가능성도 있다.

허 교수는 국민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기금 운용 원칙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봤다. 그는 "결과적으로 꺼낼 카드는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미 통화스와프 '실현 가능성 낮아'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를 단번에 낮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달러를 조달해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어 외환보유액을 직접 소진하지 않고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2020년 코로나19 충격 때 600

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의 상설 달러 유동성스와프 상대는 캐나다·영국·일본·유럽중앙은행·스위스 중앙은행으로 제한돼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특정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조달이 어려워질 때 작동하는 비상 안전판에 가깝다. 현재 고환율도 국내 금융회사가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보다는 강달러와 외국인 자금 흐름, 해외투자 등이 겹친 외환 수급 불균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허 교수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필요에 따라 비상설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도 원화 약세를 완화할 카드로 거론된다. 금리를 올려 한미 금리차를 줄이면 원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비용도 뒤따른다.

허 교수는 "한국이 금리를 움직였을 때보다 미국이 금리를 움직였을 때 환율 조정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한국의 금리 조정으로 환율을 낮추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한화오션, 내달 CPSP 등 대형 프로젝트 '윤곽'

캐나다 CPS 우선협상자 발표 예정
태국 호위함 건조사업 조만간 결론

한화오션이 올 7월을 전후해 글로벌 방산과 해양플랜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결과를 앞두고 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과 나미비아 비너스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 프로젝트,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따라 예정되면서 방산 수출 확대와 해양플랜트 실적 반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9일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순수 건조비 약 20조원과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약 9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오션은 해군의 3000t급 도산안창 호함(장보고-III)을 앞세워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G7·NATO 회원국 잠수함 수출에 도전한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오는 2044년까지 7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경제 기회 창출과 일자리 50만 개, 국내총생산(GDP) 1000억달러 기여 등을 제안했다. PCL건설, 블랙베리 등 현지 기업과 67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화 전략도 강화했다. 경쟁사인 독일 TKMS는 NATO·EU 안보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160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경제활동, GDP 860억달러, 일자리 65만개 창출 효과를 제시했다. 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

독일·노르웨이가 발주한 Type 212CD 잠수함 각각 1척의 인도 순서를 캐나다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태국 해군의 4000t급 차세대 호위함 1척 건조사업(약 8000억원)도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태국은 오는 2037년까지 호위함 전력을 8척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후속 물량의 전조전 성격이 짙다. 태국 해군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스페인 나반티아, 싱가포르 ST엔지니어링, 튀르키예 ASFAT·TAIS 등 6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9년 인도한 푸미폰 아둔야뎃함 건조 경험을,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함정 수출 실적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태국은 최소 20%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합성 성능뿐 아니라 산업협력 역량도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방산이 외연 확장의 기회라면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개선의 열쇠라는 해석이다. 한화오션 에너지플랜트사업부(EPU)는 오는 7월 최종투자결정(FID)이 예상되는 나미비아 비너스 FPSO 사업자 선정에 주

력하고 있다. 초기 개발비만 최대 100억달러(약 15조원)가 투입되는 초삼해 유전 프로젝트다.

현재 수주전은 거제사업장의 단일 아드 일괄 건조를 앞세운 한화오션과 중국 조선소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싱가포르 SBM오프쇼어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 수주는 EPU의 고정비 부담을 낮출 핵심 카드로 꼽힌다. 한화오션 해양·에너지 부문은 지난해 각각 108억원, 38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1분기에도 739억원의 적자를 냈다. 회사는 비너스 프로젝트를 교두보로 오는 2027년 이후 2년마다 FPSO 3기를 건조하는 안정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너스 FPSO를 수주하면 모파네 유전 등 나미비아 해역에서 이어질 후속 심해 플랜트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3분기 제조업 BSI 상승... 반도체 113 '최고'

상의 수출기업 중심 경기전망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호황에 따른 반도체·전자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이 전분기보다 개선됐다. 다만 수출기업 전망이 큰 폭으로 반등한 데 비해 내수기업 전망은 제자리걸음에 그쳤고 중동전쟁 여파로 하반기 경영계획을 조정할 기업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 2470 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6)보다 4포인트(p) 오른 80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가 100을 넘으면 해당 분기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문별로는 수출기업 BSI가 70에서 86으로 16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와 전자·통신 등 ICT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기대감이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내수기업 BSI는 78로 전분기와 같아 내수 회복세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113을 기록해 조사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도체는 올해 1분기 120, 2분기 118에 이어 3분기에도 기준치 100을 넘기며 3분기 연속 업황 개선 기대를 이어갔다.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는 화장품은 100을 기록했고 조선(95), 전자·통신(93), 전기장비(92)가 뒤를 이었다. 건설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부진했다. 시멘트·레미콘·유리 등을 포함하는 비금속광물은 장미철 건설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8포인트 하락한 61을 기록해 조사대상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정유·석유화학은 전분기보다 8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지만 중국발 석유화학 제품 공급과잉 우려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불확실성으로 위축됐던 대기업 BSI는 88, 중견기업은 86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중소기업은 전분기와 같은 78에 그쳐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은 하반기 기업 경영계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동전쟁으로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에 변동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5.6%가 '변동 있음'이라고 답했다. '변동 없음'은 44.4%였다.

경영계획을 수정한 기업들은 주요 변경 사항으로 가격·납품단가 조정(5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부자재 조달 규모·방식 조정(56.4%), 운영비용 관리(41.5%), 생산량·기동률 조정(32.1%), 신규 투자 규모·시점 조정(19.7%) 순이었다.

대한상의 강민재 경제정책팀장은 "제조업 경기전망이 호전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기조와 공급망 불안이 제조업 전반의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환율 변동성 관리와 원자재 수급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